

# 靈樞·骨度에 對한 研究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진단학교실  
두자성, 노스텔라, 이태호, 정현영\*, 금경수

## A study on the Gol Do(骨度) of the Young Chu(靈樞)

Dept. of oriental Medicine Graduate School Won Kwang University  
By Du Ja-sung, Roh Stella, Lee Tae-ho, Lee Young-sub, Jeong Heon-young, Keum Kyoung-su

According to the bone-standard measuring, the length between the elbow and the wrist has the span of 1.25 chons whereas it has the span of 1.2 chons or 1.2 chons today, the breadth of the chest has the span of 9.5 chons whereas it has the span of 8 chons today, and the length from celestial pivot to transverse bone has the span of 6.5 chons whereas it has the span of 5 chons, and the length from free rib region to thigh pivot has the span of 6 chons whereas it has the span of 9 chons today.

It is said that all of the acupuncture points are correctly prescribed by the bone-standard measuring irrespective of men and women of all ages, fat and lean, and whether large or small in height. This lies at the root of the selecting acupuncture points.

The bone standard in Spiritual Pivot and that in common use at present have a little difference and the bone standard of today is based upon A-B Classic.

Spiritual Pivot named as Acupuncture Classic was in good preservation until the mid-eleventh century, but the book lost a lot in contents was the incomplete edition. In the 8th year of the king Cheoljong's reign of the North Song Dynasty in 1093, though the nine-volume Spiritual Pivot drafted from the Goryo Dynasty was published, the book was wanting in consistency. While on the other, I think that A-B Classic which has been in a state of perfection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healers of the day.

Key Words: Gol Do, Young Chu

### I. 緒 論

本篇은 『靈樞』 14번째 篇으로 『甲乙經』 에는 卷二 第7 「骨度腸度腸胃所受」에, 『太素』 에는 卷

13 「骨度篇」에, 『類經』 에는 八卷 「經絡類 十八骨度」에 編述되어 있다.

인체의 頭部, 胸腹背部, 四肢部 骨格의 길이와 넓이와 長短으로 經脈의 長短, 臟腑의 大小를 측정할 수 있으며, 이것으로 取穴의 기본을 삼는다는 내용을 논술하고 있으므로 篇명을 「骨度」라 命名하였다.

骨度法으로 男女, 老少, 肥瘦, 身長의 大小를 막론하고 精確한 穴位를 精定할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으며, 이는 후대의 여러 取穴方法에 있어서 基本으로

\*교신저자: 정현영,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063)850-6808, jikjae@wonkuang.ac.kr

삼고 있다.

현재 흔히 있는 取穴의 방법들로는 體表取穴法, 骨度分寸取穴法, 指寸取穴法 등이 있다. 그러나 『古今醫統』에 “옛사람들이 특별히 同身寸法을 말한 것은 대개는 그 신체의 부위에 따라서 꺾어지는 곳이 같아서 體形의 肥瘦나 長短에 따라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과 같이 骨度로써 取穴하는 방법이 여러 경우에 따른 차이가 가장 적기 때문에 善用되어지고 있다.

임상 상 정확한 取穴의 여부는 치료효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取穴의 기본지식과 방법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骨度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11세기 중엽까지는 『靈樞經』이 세상에 유포되지 못하여 현재에 상용하고 있는 골도는 갑을 경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本篇은 骨度에 대한 최초의 문헌이며, 후대의 여러 연구들은 本篇에 근거하여 발전되어 왔으므로 本篇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研究하였다.

## II. 研究方法

本篇의 內容을 具體的으로 把握하기 위하여 原文에 懸吐·校勘·註釋·國譯考察의 순서로 연구하였다.

- 가. 原文은 『聚珍倣宋版印本』을 底本으로 하였다.
- 나. 懸吐는 傳來의 懸吐方法을 원칙으로 하였다.
- 다. 校勘에 引用한 書目은 <表一>과 같다.
- 라. 註釋은 難解한 字句에 대하여 합당한 音訓을 달고, <表二>의 註釋 가운데 합당한 것을 引用國譯하였다.
- 마. 國譯은 原文에 충실하도록 하였다.
- 바. 본 논문에 사용한 부호는 校勘에 ‘), 註釋에 ‘[ ]’, 引用文獻에 ‘『』’로 表示하였으며, 脚註는 ‘1), 2), 3)……’의 一連番號로 表示하였다.

番號	書名	略稱
1	鍼灸甲乙經	甲乙
2	黃帝內經太素	太素
3	聖濟總錄	聖濟
4	靈樞識	靈樞識

표 1. 校勘에 引用한 文獻

番號	註釋家	時代	書名	略稱
1	楊上善	隋	黃帝內經太素	太素
2	馬蒔	明	黃帝內經靈樞 注證發微	馬
3	張介賓	明	類經	景岳
4	張志聰	清	靈樞集注	張
5	黃元御	1756年	靈樞懸解	黃
6	丹波元簡	1808年	靈樞識	丹波
7	山東中醫 學院	1958年	黃帝內經白話 解	白話解
8	山東中醫 學院	1979年	針灸甲乙經校 釋	甲乙
9	廓靄春	1981年	黃帝內經靈樞 校注語譯	語譯
10	河北醫學 院	1982年	靈樞經校釋	校釋

표 2. 註釋에 引用한 文獻

## III. 研究內容

### 제1장

#### 【原文】

黃帝問於伯高曰脈度<sup>(1)</sup>는 言經脈之長短이니 何以 立<sup>(2)</sup>之오

伯高曰先度<sup>(3)</sup>其骨節之大小 廣狹 長短 而脈度定矣 니이다

黃帝曰願聞衆人<sup>(4)</sup>之度人長七尺五寸者는 其骨節之 大小長短이 各<sup>(1)</sup>幾何오

伯高 曰頭之大骨<sup>(5)</sup>은 圍二尺六寸이오 胸圍<sup>(6)</sup>四尺五寸이오 腰圍<sup>(7)</sup>는 四尺二寸이오 髮所覆者의 顛至項<sup>2X(8)</sup>은 尺二寸이오 髮以下至頤는 長一尺이니 君子終<sup>(3)</sup>折<sup>(9)</sup>이라

【校勘】

1) 各幾何; 『甲乙』卷二 第七에는 ‘知各幾何’로 되어 있다.

2) 顛至項; 『太素』卷十三 「骨度」에는 ‘顛至項長’으로 되어 있다.

3) 君子終折; 『甲乙』卷二 第七, 『太素』卷十三 「骨度」와 『聖濟』卷一九一에는 ‘君子終參’으로 되어 있다

【註釋】

- (1) 脈度(맥도); 經脈의 길이
- (2) 立; 定也, 정할일
- (3) 度; 法制, 잴 도
- (4) 衆人(중인); 보통 사람
- (5) 頭之大骨(두지대골); 頸項骨 이상이 頭顛骨이 되는데, 頭大骨이라고 한다.<sup>1)</sup>
- (6) 胸圍(흉위); 젖과 평행되게 가슴을 한 바퀴 두른 길이<sup>2)</sup>
- (7) 腰圍(요위); 배꼽 부위에 평행되게 몸을 한 바퀴 두른 길이<sup>3)</sup>
- (8) 顛至項(노지정); 이마 위 前髮際부터 목덜미 뒤의 後髮際까지<sup>4)</sup>
- (9) 君子終折(군자종절); ‘君子’는 體格이 均衡하고 五官이 端正한 사람을 가리킨다. ‘終折’은 이마의 넓이에 따라 前髮際에서 아래로 턱까지와 前髮際에

서 後髮際까지의 길이가 다를 수 있으나 이를 절충해서 二尺二寸으로 계산한다는 의미이다.

【國譯】

黃帝께서 伯高에게 물으시기를, 脈度는 經脈의 長短을 말하니 무엇으로써 기준을 세우는가?

伯高가 대답하기를, 먼저 그 骨節의 크기와 넓이, 길이를 재어서 脈度를 정합니다.

黃帝께서 물으시기를, 신장이 七尺 五寸인 보통 사람은 그 骨節의 大小, 長短이 각각 어떠한가?

伯高가 대답하기를, 머리 둘레가 二尺六寸이고, 가슴둘레가 四尺五寸이고, 허리둘레가 四尺二寸이고, 前髮際에서 後髮際까지는 一尺二寸이고, 前髮際에서 턱 끝까지는 一尺이고, 몸이 단정한 사람은 髮際의 끝을 절충하여 전체를 二尺二寸으로 정합니다.

제2장

【原文】

結喉<sup>(10)</sup>以下至缺盆<sup>(11)</sup>中은 長四寸이오 缺盆以<sup>(4)</sup>下至 臑 髻<sup>(12)</sup>는 長九寸이니 過則肺大요 不滿則肺小라 臑 髻以下至天樞<sup>(13)</sup>는 長八寸이니 過則胃大요 不及<sup>(5)</sup>則胃小라 天樞以下至橫骨<sup>(14)</sup>은 長六寸半이니 過則迴<sup>(6)</sup>腸 廣長이오 不滿則狹短이라 橫骨은 長六寸半이오 橫骨上廉以下로 以至內輔<sup>(15)</sup>之上廉은 長一尺八寸이오 內輔之上廉以下로 至下廉은 長三寸半이오 內輔下廉<sup>(7)</sup>으로 下至內踝는 長一尺三寸이오 內踝以下至地는 長三寸이오 膝膕<sup>(16)</sup>以下至跗屬<sup>(17)</sup>은 長一尺六寸이오 跗屬以下至地는 長三寸이라 故로 骨圍大則太過요 小則不及이라

【校勘】

4) 缺盆以; 『甲乙』卷二 第七에는 ‘至缺盆’으로 되어 있다.

5) 不及; 『太素』卷十三 「骨度」와 『聖濟』卷一九에는 ‘不滿’으로 되어 있다.

6) 迴腸; 『甲乙』卷二 第七에는 ‘胃腸’로 되어 있

1) “自頸項骨以上爲頭顛骨，以爲頭大骨也。”  
楊上善, 『太素』卷十三 「骨度」  
2) 河北醫學院. 靈樞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5. p. 328. “在平乳部位繞胸一周的長度.”  
3) 河北醫學院. 靈樞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5. p. 328. “在平臍部位繞身一周的長度.”  
4) 南京中醫學院中醫系. 黃帝內經靈樞譯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7. p. 149. “由額上前髮際, 向項後的髮際縱量爲標準”

다.

7) 內輔下廉; 『太素』卷十三 「骨度」에는 ‘內輔之下廉以’로 되어 있다.

【註釋】

- (10) 結喉(결후); 후두결절
- (11) 缺盆(결분); 足陽明胃經의 穴, 어깨 아래 橫骨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다.<sup>5)</sup>
- (12) 髑髀(갈우); 흉골검상돌기, 흉골 아래 끝의 髀心骨, 鳩尾骨이라고도 한다.<sup>6)</sup>
- (13) 天樞(천추); 배꼽과 평행하며 2촌 옆에 있는 足陽明經穴<sup>7)</sup>
- (14) 橫骨(횡골); 耻骨을 가리킨다. 足少陰腎經穴
- (15) 內輔(내보); 무릎 안쪽 脛骨頭를 가리킨다.<sup>8)</sup>
- (16) 膝膑(슬골); 다리의 屈伸處, 앞쪽을 ‘膝’이라 하고, 무릎의 뒷쪽을 ‘膑’이라 한다.<sup>9)</sup>
- (17) 跗屬(부속); 跟骨結節, 두 다리의 복사뼈 앞뒤에 京骨과 蹠骨이 만나는 자리<sup>10)</sup>

【國譯】

후두결절에서 아래 缺盆의 중앙부위인 天突까지는 四寸이고, 天突에서 아래로 髑髀까지는 九寸이니, 길이가 이보다 더 길면 肺가 크고, 짧으면 肺가 작다. 髑髀에서 아래 배꼽까지는 八寸이니, 더 길면 胃가 크고, 짧으면 胃가 작다. 배꼽에서 아래 치골결합부까지는 六寸半이니, 더 길면 迴腸이 넓고 길며, 짧으면 좁고 짧다. 橫骨은 길이가 六寸半이고, 橫骨윗모서리에서 아래 脛骨頭의 윗모서리까지는 一尺八寸이

고, 경골두의 윗모서리에서 아랫모서리까지는 三寸半이고, 경골두의 아랫모서리에서 아래 內踝까지는 一尺三寸이고, 內踝에서 발바닥까지는 길이가 三寸이고, 오금에서 跟骨結節까지는 一尺六寸이고, 跟骨結節에서 발바닥까지는 三寸이다. 그러므로 骨圍가 크면 길어지고 작으면 짧아진다.

제3장

【原文】

角<sup>(18)</sup>以下至柱骨<sup>(19)</sup>은 長一尺이오 行腋中不見<sup>(20)</sup>者는 長四寸이오 腋以下至季脇<sup>(21)</sup>은 長一尺二寸이오 季脇以下至脾樞<sup>(22)</sup>는 長六寸이오 脾樞以下至膝中<sup>(23)</sup>은 長一尺九寸이오 膝以下至外踝는 長一尺六寸이오 外踝以下至京骨<sup>(24)</sup>은 長三寸이오 京骨以下至地는 長一寸이라

【註釋】

- (18) 角(각); 額角<sup>11)</sup>
- (19) 柱骨(주골); 天柱骨, 제7경추극상돌기
- (20) 行腋中不見者(행액중불견자); 천주골에서 腋橫紋頭까지를 의미한다.
- (21) 季脇(계협); 제12肋骨아래 옆구리
- (22) 脾樞(비추); 股關節上端部位
- (23) 膝中(슬중); 膝蓋骨 外側 中間부위
- (24) 京骨(경골); 足小趾 本節後 外側突出 半圓骨

【國譯】

額角에서 天柱骨까지는 一尺이고, 천주골에서 腋橫紋頭까지는 四寸이고, 腋橫紋頭에서 季脇까지는 一尺二寸이고, 季脇에서 股關節上端까지는 六寸이고, 고관절상단에서 膝蓋骨外側中間까지는 一尺九寸이고, 무릎에서 내려가 外踝까지는 一尺六寸이고, 外踝에서 足小趾 本節後 外側突出 半圓骨까지는 三寸이고, 그곳에서 발바닥까지는 一寸이다.

11) 南京中醫學院中醫系, 黃帝內經靈樞譯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7. p. 149 “即額角, 在頭側耳上的高角.”

5) 謝觀. 新編 中國醫學大辭典, 여강출판사. 서울. 2001. p. 92. “此穴屬足陽明胃經, 在肩下橫骨陷中”  
 6) 河北醫學院. 靈樞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5. p. 328. “胸骨下端之髀心骨, 也叫鳩尾骨, 俗稱劍突”  
 7) 南京中醫學院中醫系. 黃帝內經靈樞譯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7. p. 149. “穴名, 與齊平, 旁開二寸, 足陽明經穴”  
 8) 南京中醫學院中醫系. 黃帝內經靈樞譯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7. p. 149. “此處是指膝內輔骨”  
 9) 謝觀. 新編 中國醫學大辭典, 여강출판사. 서울. 2001. p. 92. “兩足屈伸處, 前面爲膝, 後面爲膑”  
 10) 南京中醫學院中醫系. 黃帝內經靈樞譯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7. p. 149. “指兩足踝前後脛骨與蹠骨所交之處, 皆爲跗之所屬”

제4장

【原文】

耳後當完骨<sup>(25)</sup>者是 廣九寸이오 耳前當耳門<sup>(26)</sup>者是 廣一尺三寸이오 兩顳<sup>(27)</sup>之間은 相去七寸<sup>(8)</sup>이오 兩乳之間은 廣九寸半이오 兩髀之間은 廣六寸半이오

足長一尺二寸이며 廣四寸半이오 肩至肘는 長一尺七寸이오 肘至腕은 長一尺二寸半이오 腕至中指本節은 長四寸이오 本節至其末은 長四寸半이러

【校勘】

8) 相去七寸; 『甲乙』 卷二 第七에는 ‘相去九寸半’으로 되어 있다.

【註釋】

- (25) 完骨; 乳樣突起
- (26) 耳門; 耳珠앞 가장자리, 聽宮穴 부위
- (27) 顳; 目下高骨, 광대뼈귀

【國譯】

귀 뒤 양쪽 유양돌기 사이의 넓이는 九寸이고, 귀 앞 耳門 사이의 넓이는 一尺三寸이고, 양쪽 광대뼈는 서로 七寸 떨어졌고, 兩乳頭 사이 넓이는 九寸半이고, 양쪽 鼠蹊部의 넓이는 六寸半이다.

발의 길이는 一尺二寸이고, 넓이는 四寸半이고, 肩에서 肘까지는 一尺七寸이고, 肘에서 腕까지는 一尺二寸半이고, 腕에서 中指本節까지는 四寸이고, 本節에서 손끝까지는 四寸半이다.

제5장

【原文】

項髮以下至背<sup>(9)</sup>骨<sup>(28)</sup>은 長二寸半<sup>(10)</sup>이오 膂骨<sup>(29)</sup>以下至尾骶<sup>(30)</sup>二十一節은 長三尺이니 上節長一寸四分分之一이니 奇分在下<sup>(31)</sup>라 故로 上七節<sup>(11)</sup>至于膂骨은 九寸八分分之七이라 此는 衆人骨之度也<sup>(12)</sup>니 所以立經脈之長短也라 是故로 視其經脈<sup>(13)</sup>之在於身也에 其見

浮而堅하고 其見明而大者는 多血이오 細而沈者는 多氣<sup>(14)</sup>也<sup>(15)</sup>니라

【校勘】

9) 背骨; 『太素』 卷十三 「骨度」와 『聖濟』 卷一百九十一에는 ‘膂骨’로 되어 있다.

10) 長二寸半; 『甲乙』 卷二 第七과 『太素』 卷十三 「骨度」에는 ‘長三寸’半으로 되어 있다.

11) 七節; 『甲乙』 卷二 第七, 『太素』 卷十三 「骨度」와 『聖濟』 卷一九一에는 ‘七節下’로 되어 있다.

12) 衆人骨之度也; 『太素』 卷十三 「骨度」에는 ‘衆人之骨度也’로 되어 있다.

13) 經脈; 『太素』 卷十三 「骨度」와 『聖濟』 卷一九一에는 ‘經絡’으로 되어 있다.

14) 多氣; 『太素』 卷十三 「骨度」에는 ‘少氣’로 되어 있고, 楊註에는 ‘或作多氣’라고 하였다.

15) 是故視……多氣也; 『靈樞識』에는 ‘이 한 구절은 骨度和 관련이 없으므로, 다른 編과 錯簡된 것 같다’라고 되어 있다. 『甲乙』 卷二 第七에는 ‘多氣也’ 아래에 ‘乃經之長短也’ 여섯 글자가 더 있다.

【註釋】

(28) 背骨; 제7頸椎와 제1胸椎棘上突起 사이의 大椎穴 부위

(29) 膂骨; 제1胸椎

(30) 尾骶; 尾는 미려골, 骶는 미려골 위 四節椎骨

(31) 奇分在下; 奇分은 남아 부족한 數를 가리킨다. 下는 七椎以下를 가리킨다.<sup>12)</sup>

【國譯】

後髮際에서 大椎穴까지는 二寸半이고, 第1胸椎에서 4번째 尾骨까지 二十一節은 三尺이고, 上節은 길이가 一寸 四分 一厘로 그 아래 나머지 骨節도 계산하니, 그러므로 上七節에서 제1흉추까지는 九寸 八分 七厘이다. 이것들이 보통 사람의 骨度이고, 경맥의

12) 南京中醫學院中醫系, 黃帝內經靈樞譯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7. p. 150. “奇分, 是指有餘不盡的奇零分數. 下, 是指七椎以下.”

長短의 기준을 세운 것이다. 그래서 인체의 經脈을 살펴볼 때에 그 떠올라 있으면서 단단한 것과 또렷하면서 큰 것은 多血한 맥상이고, 細小하면서 가라앉아 있는 것은 多氣한 맥상이다.

部位	起止點	長度	甲乙經長度
頭頸部	頭之大骨圍	二尺六寸	
	髮所復者顛至項(前髮際至後髮際)	一尺二寸	
	髮以下至頤	一尺	
	結喉以下至缺盆中	四寸	
	耳後當完骨者(耳後兩高骨間)	九寸	
	耳前當耳門者(兩聽宮穴間)	一尺	一尺二寸 (一作三寸)
	兩顙之間	七寸	九寸半
	角以下至柱骨	一尺	
	項髮以下至膂骨(後髮際至大椎)	三寸五分	
胸復背部	膂骨以下至尾骶	三尺	
	行腋中不見者(從頸根至腋)	四寸	
	胸圍	四尺五寸	
	腰圍	四尺二寸	
	缺盆以下至臑髻	九寸	
	臑髻以下至天樞(臍中)	八寸	
	天樞以下至橫骨	六寸五分	
	橫骨長	六寸五分	
	兩乳之間	九寸五分	
	腋以下至季脇	一尺二寸	
	季脇以下至髀樞	六寸	
四肢部	肩至肘	一尺七寸	
	肘至腕	一尺二寸五分	
	腕至中指本節	四寸	
	本節至其末	四寸五分	
	橫骨上廉以下至內輔上廉	一尺八寸	
	內輔上廉以下至下廉	三寸五分	
	內輔下廉以下至內踝	一尺三寸	
	內踝以下至地長	三寸	
	兩髀之間	六寸五分	
	髀以下至膝中	一尺九寸	
	膝臑以下至跗屬	一尺六寸	
	膝以下至外踝	一尺六寸	
	跗屬以下至地長	三寸	
	外踝以下至京骨	三寸	
	京骨以下至地長	一寸	
足長	一尺二寸		
足廣(寬)	四寸	四寸半	

표 3. 骨度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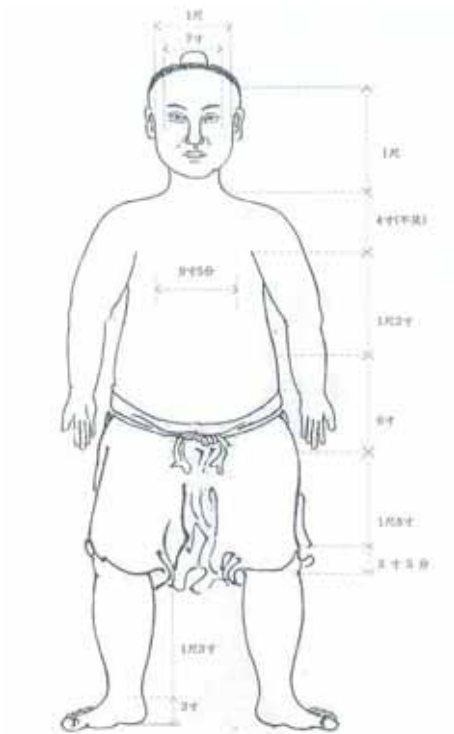


그림 1.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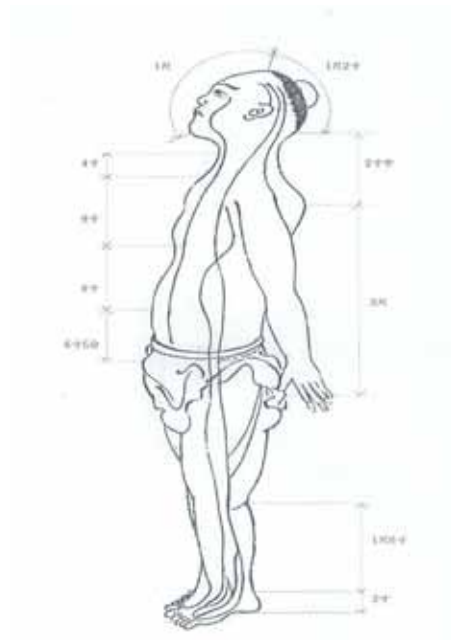


그림 2. 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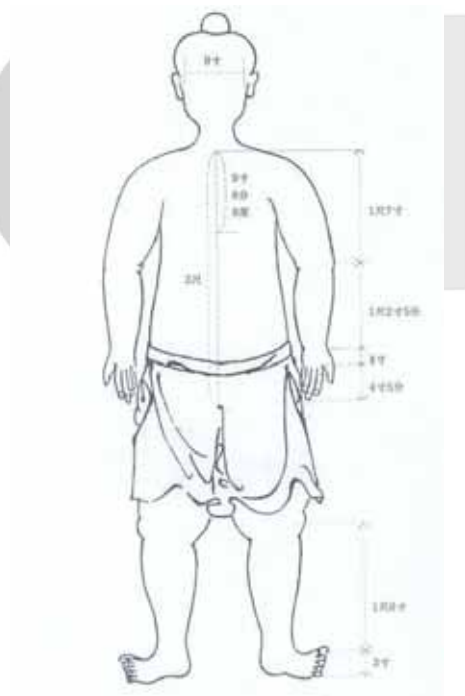


그림 3. 배면도

#### IV. 考察 및 結論

본편에서는 肘至腕이 1尺2寸5分이라고 되어 있지만, 현대에는 1尺2寸이나 1尺으로 보며, 兩乳之間이 9寸5分이라고 되어 있지만, 현재에는 8寸으로 본다. 天樞以下至橫骨이 6寸5分이라고 되어 있으며, 현재에는 대개 5촌으로 보며, 季脇以下至臍樞가 6寸이라고 되어있지만, 현재에는 9寸으로 본다.

영추경의 골도는 현재 상용되고 있는 골도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현재의 골도는 갑을경을 근거로 하고 있다. 침경이라 불린 영추경은 11세기 중엽까지는 존재하고 있었지만 손실된 부분이 매우 많은 불완전본이었고, 그 후 북송의 철종 8년(1093년)에 고려로부터 九卷의 영추가 현상됨으로써 세상에 다시 유포되어 시대적 단절이 있었고, 갑을경은 지속적으로 존재하여 그 당시 의가들에게 보다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사료된다.

#### VI. 參考文獻

<단행본>

1. 馬蒔, 王洪圖·李碩青 校點.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科學技術文獻出版社. 北京. 2000.
2. 楊上善 撰注·王洪圖 李雲 增補點校. 黃帝內經太素, 科學技術文獻出版社. 北京. 2000.
3. 張志聰, 鄭林 外 7人 校點, 黃帝內經靈樞集注.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4. 吳大眞 外. 中醫辭海. 中國醫藥科學技術出版社. 北京. 1999.
5. 張介賓, 于越 外 10人 校點, 類經.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6. 周學海, 鄭洪新 李敬林 主編. 內經評文靈樞.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7. 皇甫謐 著·張燦理 徐國仟 主編. 鍼灸甲乙經校注.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6.
8. 樓英 編撰·何靜 外 2人 校注. 醫學綱目.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6.

9. 고대민족문화사연구소중국어대사전편찬위원회. 중한대사전. 고대민족문화연구소. 서울. 1995.
10. 김민수 외.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서울. 1991.
11. 黃元御. 靈樞懸解.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0.
12. 郭藹春.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天津科學技術出版社. 天津. 1989.
13. 고대민족문화사연구소중국어대사전편찬위원회. 중한사전. 고대민족문화연구소. 서울. 1989.
14. 上海中醫學院中醫文獻研究所. 中國醫籍字典. 江西科學技術出版社. 南昌. 1989.
15. 洪元植 等譯. 한의학대사전[기초이론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서울. 1988.
16. 李今庸. 新編黃帝內經綱目.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1988.
17. 龍伯堅 著·白貞義 崔一凡 共譯. 黃帝內經概論. 논장. 서울. 1988.
18. 陳夢雷 等編. 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 醫經註釋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8.
19. 南京中醫學院中醫系.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1986.
20. 任應秋. 黃帝內經章句索引.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6.
21. 任應秋. 黃帝內經類析. 內蒙古人民衛生出版社. 內蒙古. 1986.
22. 章楠. 靈素節注類編. 浙江科學技術出版社. 浙江. 1986.
23.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大星文化社. 서울. 1986.
24. 洪元植 等譯. 한의학대사전[의사문헌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서울. 1985.
25. 丹波元間. 靈樞識.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26. 金赫濟金星元. 명문한대사전. 명문당. 서울. 1984.

27. 김현제·홍원식. 한의학사전. 성보사. 서울. 1983.
28. 張三植. 대한한사전. 진현서관. 서울. 1982.
29. 張介賓. 類經簡字本. 成輔出版社. 서울. 1982.
30. 張介賓. 類經正字本. 大星文化社. 서울. 1982.
31. 河北醫學院. 靈樞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2.
32. 馬蒔張志聰.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臺聯國風出版社. 臺北. 1981.
33. 謝觀. 東洋醫學大辭典. 高文社. 서울. 1980.
34. 李熙昇. 국어대사전. 民衆書林. 서울. 1980.
35. 皇甫謐 著, 山東中醫學院 校釋. 針灸甲乙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79.
36. 中國中醫學院. 漢方醫學叢書. 東洋綜合通信教育院出版部. 大邱. 1979.
37.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譯解. 臺聯國風出版社. 臺北. 1976.
38. 皇甫謐. 黃帝針灸甲乙經. 宏業書局有限公司. 臺北. 1976.
39. 王永 撰. 靈樞經. 臺灣中華書局. 臺北. 1972.
40. 陳璧琥鄭卓人. 靈樞經白話解. 人民衛生出版社. 1963.
41. 楊上善 著, 蕭延平 按. 黃帝內經太素. 出版社. 年度未詳.
42. 中醫研究院廣東中醫學院. 中醫名辭術語辭典. 지식출판사. 香港. 出版年度未詳.